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I 문학의 본질과 구조

-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30문제)-----1쪽
- ② 서경별곡 (39문제)-----14쪽
- ③ 나상 (44문제)-----35쪽
- ④ 북어 대가리 (42문제)-----62쪽
- ⑤ 나와 남 (18문제)-----87쪽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① 이춘풍전 (32문제)-----102쪽
- ②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30문제)-----126쪽
- ③ 세한도 (30문제)-----142쪽
- ④ 메밀꽃 필 무렵 (31문제)-----157쪽
- ⑤ 유충렬전 (32문제)-----177쪽
- ⑥ 울포의 기억 (24문제)-----200쪽
- ⑦ 이옥설 (30문제)-----212쪽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 ① 속미인곡 (42문제)-----222쪽
- ② 미스터 방 (30문제)-----245쪽
- ③ 춘향가 (25문제)-----268쪽

◆빠른 전체 정답-----**287**쪽

◆해설-----**29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이춘풍전” 요약 정리

핵심 정리

고종시대-기후

- 갈래** 고전 소설, 세태 소설, 풍자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성격**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
- 배경** 조선 숙종 때의 서울과 평양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 제시

핵심 정리

고종시대-기후

- 특징** ①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 씨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 ② 물질 중심적 가치관의 형성, 여성 의식의 성장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함.

꼼꼼 정리

고종시대-기후

● 남장모티프

고전 소설에서 '남장(男裝)'은,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봉건 사회에서 여성인 등장인물이 사회에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남장 모티프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와 활약상은, 여성 의식의 성장과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을 잘 보여 준다.

꼼꼼 정리

고종시대-기후

● 춘풍 아내 김 씨의 문제 해결 방식

-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함.
- 지혜와 처세로써 남성 사회에 과감하게 뛰어듦.
- 권권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인물들을 징벌함.

여성의 능력과 지혜를 두드러지게 드러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관점이 진보적으로 변화하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함.

꼼꼼 정리

고종시대-기후

● 춘풍의 모습을 통한 풍자와 해학

풍자	해학
무능하면서도 허세를 부리며 아내에게 교만하게 구는 춘풍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과 허위를 풍자함.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비장에게 찢절매다가, 비장의 정체가 밝혀지자 너스레를 떠는 춘풍의 모습을 통해 해학성이 유발됨.

꼼꼼 정리

고종시대-기후

● 인물의 대비

이춘풍	아내 김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락과 사치를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함. •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하지만, 권력자에게는 비굴하게 처신하는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런하고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며, 위기에 처한 춘풍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 •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남편을 바로잡아 주고 포용함.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의 면모와 가부장적 질서의 위선을 비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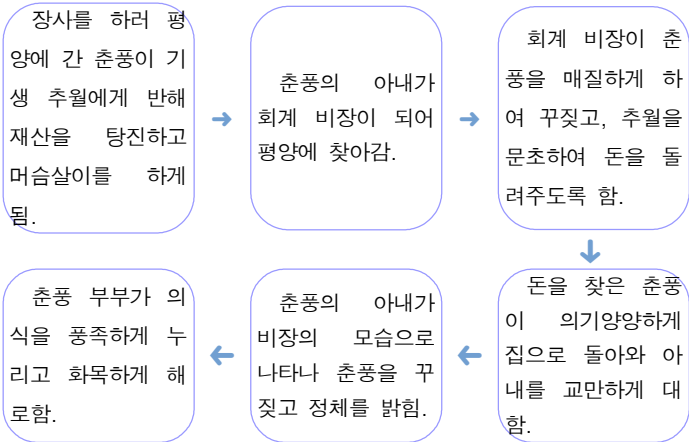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 씨, 기생 추월 등 개성적인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춘풍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그것을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한다. 장사를 한다며 평양으로 간 춘풍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추월의 집 종으로 전락한다. 추월은 돈과 이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물인데, 이러한 인물은 조선 후기 세태 소설에 흔히 등장한다. 반면에 춘풍의 아내는 생활력이 강하고 어진 인물이다. 춘풍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여러 번 남편을 깨우쳐 주려 하지만, 춘풍은 도리어 가부장으로서의 헛된 위세를 부리면서 아내를 무시한다. 춘풍의 이러한 면모는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가부장적 권위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춘풍이 추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자 아내 김 씨는 지혜를 발휘하여 수모를 겪고 있던 춘풍을 구제한다. 김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삶을 개선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 여성 의식의 성장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이춘풍전」은 돈이 삶의 조건과 밀접해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태와 한층 성장한 여성 의식 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 판소리적 성격이 강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평가되며, 이춘풍, 아내 김 씨, 기생 추월과 같은 유형의 인물이 당대에 연행되던 판소리 「강릉 대화 타령」, 「알짜 타령」 등에 나타나는 등 판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문학사적 맥락이나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도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이춘풍전” 모티브 읽기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이해해 보자.

(1) 다음 빈칸을 채우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



(2) 평양과 서울에서 춘풍이 보여 주는 태도의 차이를 말해 보자.

춘풍은 평양에서 며슴살이를 할 때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비장 앞에서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나,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음식 타박을 하며 거드름을 피운다.

(3) (1)과 (2)의 활동 결과와 ‘보기’를 참고하여, 춘풍과 춘풍 아내의 면모를 비교해 보자.

보기

“이와 같은 일에 김 씨가 믿지 않기로, 이후로 만약 방탕한 일이 있거든 내가 비루한 놈의 자식이로소이다.”
 수기를 다시 써서 주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웃으면서 수기를 받아 함롱 속에 넋짓 넣고 이날부터 치산할 제, 바느질, 길쌈 다 하겠다. 오 푼 받고 버선 짓기, 한 돈 받고 뜨개 버선, 두 돈 받고 한삼 짓기, 봄이면 삼베 놓고, 여름이면 모시 누비, 가을이면 염색하기, 겨울이면 무명 놓고 이렇저렇 사시절 밤낮없이 힘써 하니, 사오 년 내에 의식이 유여하고 가세가 풍족하다. 춘풍이 아내 덕으로 의복을 잘 차려입고, 맛난 음식에 배부르고, 집안 술로 매일 장취하여, 가래침도 겨누어 뺨고 곤자소시에 기름지니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춘풍은 주색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아내에게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무능하고 한심한 인물인 데 반해, 춘풍의 아내는 근면하게 일하여 재산을 모으고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해 내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다.

2. 공통점이 있는 두 소설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서 감상해 보자.

장끼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불은 콩 한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직 그 콩 먹지 마오. 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선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천산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만경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나?”
 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사리는 그럴 듯하오마는 지난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자량하여 처사하오.” (중략)
 장끼 고집 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룩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갯짓 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헛부리로 콩을 짹 짹 씹으니 두 고괘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 중에 저격 시황 하다가 버금 수레 맞치는 듯 와지근 똑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 풀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절해한다.
 - 작자 미상, 「장끼전」 중에서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이춘풍전』과 『장끼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조선 시대에는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존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였다.

『이춘풍전』에서는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춘풍과 생활력이 강하고 진취적인 아내 김 씨가 겪는 사건 및 그에 대한 대응 태도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고, 「장끼전」에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는 까투리(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죽게 되는 장끼(남편)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이춘풍전』과 『장끼전』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찾아보자.

보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소설을 일컫는다. 판소리계 소설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풍자와 해학을 기반으로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또한 표현 면에서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하는 말’이나 ‘거동 보소’처럼 대화나 동작 제시를 위한 말의 반복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춘풍전』과 「장끼전」은 모두 가부장적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해학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나타난다. 또한 「이춘풍전」에서는 대화 제시를 위한 말인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였으며, 「장끼전」에서는 ‘꾸벅꾸벅’, ‘조춤조춤’ 등의 의태어와 ‘똑딱’, ‘푸드드득’ 등의 의성어가 빈번히 쓰였다.

“이춘풍전” 원고 중 원고

1. 추월의 집에서 춘풍의 면모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추월의 집에서 머슴으로 전락한 춘풍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매우 남루하여 거지나 다를 바 없는 몰골로 묘사되고 있다.

2. 비장이 사령으로 하여금 춘풍을 매질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월에게 빠져 장사 밀전을 당진한 남편에 대한 원망의 표출이자, 남편을 엄하게 꾸짖어 방탕과 허세에서 구하려는 의도이다.

3. 추월이 한 말을 통해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가?

춘풍의 재산을 뜯어내고도 돈의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점에서 부도덕성을, 매질 앞에서도 험사리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점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엿볼 수 있다.

4. 비장이 춘풍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열흘 안으로 추월에게서 받은 돈을 전부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문안 인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5. 춘풍의 아내는 춘풍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집에 돌아온 춘풍을 반갑게 맞이하고 차담상을 차려 대접하면서 춘풍의 과오를 모른 척 눈감아 줌으로써, 남편을 가장으로 대우해 주고 있다.

6. 비장이 춘풍에게 죽을 먹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월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했던 때를 상기하여 앞으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춘풍전” 단절 원고

교과서 - 66쪽 7~8행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을 자처하여 남장을 하고 평양에 찾아간다.

○ 남장 모티프는 「이춘풍전」 외에도 「홍계월전」, 「정수정전」 등의 고전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던 봉건 사회에서 여성인 주인공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던 수단이었다. 이에 덧붙여 허위에 찬 당대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남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활약상을 통해, 여성의 본질적 능력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다.

교과서 - 66쪽 15~17행

간사한 추월이는 회계 비장 호리려고 마음먹어 회계 비장 엿보면서 교태하여 수작타가 각별히 차담상을 차려 만반진수(萬盤珍羞) 들이거늘,

○ 추월이 회계 비장을 호리려 수작하는 것은, 그가 남성인 줄 알고 여색으로 피어 잇속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행동이다. 앞서 평양에 장사하러 왔던 춘풍에게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탈취한 추월은, 물질적 가치관에 따르던 당대의 세속적 인물 유형에 해당한다. 추월과 같은 면모를 지닌 인물들이 조선 후기 고전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것을 통해 당대 사회에 팽배했던 배금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교과서 · 67쪽 10~12행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고 다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 춘풍은 눈앞에 있는 비장이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간의 잘못을 이실직고(以實直告)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춘풍의 모습은, 가부장제의 모순 속에서 남성에게 억눌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남성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했던 당대 여성들의 욕구와 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 67쪽 13~16행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이 말 듣고 이를 같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되,
“네 가서 그년 잡아 오라. 바빠바빠 잡아 오되,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네가 중죄를 당하리라.”

- 춘풍의 아내인 비장은, 추월이 미색으로 남편을 꺾어 돈을 탕진하게 하고 머슴으로 전락시키기까지 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월을 ‘원수같이’ 여기고 있다. 비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추월을 혼내 주고 남편의 돈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춘풍이 추월과 관계된 일을 자백하자마자 사령에게 추월을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 68쪽 24~26행

“호조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네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전부 궤봉하라.”

- 비장은 추월을 죽이라는 것이 호조의 공식적 명령이었다고 말하며, 추월에게 살려 주는 대신 약속한 돈을 모두 바치라며 호령하고 있다. 또한 이자를 따져 오천 냥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애초에 춘풍이 지니고 온 것이 이천오백 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라 볼 수 있다.

교과서 · 69쪽 23~26행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작은집의 그 음식 좀 먹어 보소.”

- 평양 추월의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며 헐벗고 굶주리던 춘풍이,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 준 음식을 타박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이러한 춘풍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가부장적 권위가 허세에 불과했다는 점을 풍자하고 있다.

교과서 · 70쪽 2~5행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다.”

○ 춘풍이 비장으로 변장한 아내에게 자신이 매를 맞은 것은 상(賞)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장이 잃었던 자신의 돈까지 찾아 주었기에 한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내와 비장을 대하는 춘풍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힘 없는 자에게는 강하게 굴고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하게 처신하는 춘풍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드러낸다.

교과서 · 71쪽 3~6행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려고 그리했지.”

○ 비장의 정체가 아내임을 알게 된 춘풍은 자신의 허위적인 모습이 폭로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하였음에도 너스레를 떨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가장으로서 끝까지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차리려는 춘풍의 의도가 엿보이는 동시에 작품의 해학성이 부각되고 있다.

교과서 · 71쪽 16~19행

대저 여자로서 손수 남북하고 회계 비장으로 내려가서, …… 후세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여자 되거든 이런 일 효칙(效則)하옵소서.

○ 편집자의 목소리가 직접 나타나는 부분이다. 춘풍의 아내 김 씨의 공적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를 밝히고, 여성들로 하여금 춘풍의 아내를 본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추구하고 있다.

교과서 · 44쪽 3~6행

아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 놓았다고 한다.

○ 신화의 내용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앞쪽과 등 뒤에 매달아 놓았다는 두 개의 보따리는 인간의 본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은유로서, ‘나’와 ‘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풀어 나가는 데 효과적인 단초가 되고 있다.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有故)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하(門下)에 문안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쇄하옵니다.”

비장이 사또 전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고하고 조용히 여쭙되,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오니, 사또님께서서는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오천 냥을 모두 ①수쇄하여 춘풍에게 보내 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가 허락하자,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賞給)한 돈 수만 냥을 환전(換錢)으로 부쳐 놓고 이어서 ②발행할새,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환전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니, 십 일이 다 못 되어 오천 냥을 다 바쳤거다.

춘풍이가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이익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 아내가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불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쳐 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 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작은집의 그 음식 좀 먹어 보소.”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 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쭙되,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

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의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을들 있을쏜가. 제가 손수 죽을 썬려고 죽 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③내외(内外)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렵던 차에 가솔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④무가내하(無可奈何)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는 모양이 우습고도 불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⑤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뜯아래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어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불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우스워 못 하겠다. 이런 꼴을 불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작자미상, ‘이춘풍전’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전기의 새로운 세태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 ② 등장 인물들은 당대 한문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로 전형성을 지녔다.
- ③ 여성이 자유롭게 능력을 펼치는 모습은 당대의 개방적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남자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는 남성 중심적 권위 의식에 대한 풍자로 읽힐 수 있다.
- ⑤ 유사한 주제 의식을 지닌 작품에는 구운몽, 웅고집전 등이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다음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춘풍은 비장 덕에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 ② 사또는 비장의 속셈을 알고 은근히 경계하고 있다.
- ③ 춘풍의 처는 춘풍의 행적을 모르는 척하며 반가이 맞아 주고 있다.
- ④ 춘풍은 비장의 정체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 ⑤ 비장은 춘풍에게 죽을 먹게 하여 지난날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3. 다음 중 어휘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쇄하여: (세금을) 거두어 모아
- ② ㉡발행할새: 길을 떠나니
- ③ ㉢내외: 낯선 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
- ④ ㉣무가내하(無可奈何)라: 달리 어찌할 수 없어라.
- ⑤ ㉤사환: 잔심부름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사리는 그럴 듯하오마는 지난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자량하여 처사하오.” (중략)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룩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헛부리로 콩을 짹 짹 씹으니 두 고패 등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 중에 저격 시항 하다가 버금 수레 맞치는 듯 와지끈 푹푹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작자미상, '장끼전'

강일고등학교 (서울)

4. 위 글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속담 등 관용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의성어와 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운율감을 주고 있다.
- ③ 우화적 요소를 통해 풍자와 해학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비판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 ⑤ 열린 결말을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5. <보기>의 장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
- ② 부전자전(父傳子傳)
- ③ 자업자득(自業自得)
- ④ 환골탈태(換骨奪胎)
- ⑤ 일취월장(日就月將)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들 위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각별히 매우 처라.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네 목숨이 죽으리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매마다 표를 하며 십여 대를 중장하며, / “이년, 바빠 다짐하여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 “네 죄를 네가 아느냐?”

추월이 여쭙되, /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비장이 이 말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절각이라 하는 말을 네 아느냐? 불 같은 호조 돈을 영문(營門)이 물어 주랴, 본관(本官)에서 물어 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라? 네 이 지경에 무슨 잔말하라?”

군뢰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刑杖)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白日青天)에 벼락 치듯 만첩청산(萬疊靑山) 올리듯 금장(禁仗) 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 “네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朱杖)으로 지르면서 오십 대 중장하고,

“바빠 다짐 못 할쏘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여 여쭙되,

“국법(國法)도 엄숙하고 관령(官令)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 “호조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네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전부 궤봉하라.”

추월이 여쭙되, / “십 일 말미를 주옵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들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有故)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하(門下)에 문안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쇄하옵니다.”

비장이 사또 전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고하고 조용히 여쭙되,

①“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오니, 사또님께서는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오천 냥을 모두 수쇄하여 춘풍에게 보내 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가 허락하자,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賞給)한 돈 수만 냥을 환전(換錢)으로 부쳐 놓고 이어서 발행할새,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환전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니, 십 일이 다 못 되어 오천 냥을 다 바쳤었다.

춘풍이가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②“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이익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 아내가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불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쳐 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 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작은집의 그 음식 좀 먹어 보소.”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 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③“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쭙되, 회계 비장 하는 말이, /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되, /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의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내가 왔단 말을 듣고 ④네 집에 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쏘냐. 제가 손수 죽을 썬려고 죽 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內外)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렵던 차에 가솔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無可奈何)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는 모양이 우습고도 불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아래 서서 되는데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어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 ⑤“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우스워 못 하겠다.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 “이 멍청아!”

하며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려고 그리했지.”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그렇저렇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 돈을 다 바치고, 상급한 수만 냥 재산으로 노비 전답 다시 장만하니,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하여 화목하게 평생 화락이 좋을시고. 그 큰 것 없이 지냈구나.

대저 여자로서 손수 남북하고 회계 비장으로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 같은 낭군도 데려오고 호조 돈도 수채하고 부부 둘이 종신토록 살았으니, 만고에 해로운 일인고로 대강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여자 되거든 이런 일 효칙(效則)하옵소서.

-작자미상, ‘이춘풍전’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대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군.
- ② 주요 인물의 성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여 각 인물들에게 개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남장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추월을 응징하는 장면을 통해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비장이 자기 아내인 것을 못 알아채고 찢절매는 춘풍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의 허세를 폭로하고 있군.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개 고르면?

<보기>

장끼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붙은 콩 한 알이 덩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 “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 “아직 그 콩 먹지 마오. 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중략)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룩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갯짓하며 조츰조츰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헛부리로 콩을 짹 짹 하니 두 고패 등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량사 중에 저격 시랑 하다가 버금 수레 맞치는 듯 와지끈 똑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얹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 /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敗家)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 작자 미상, 「장끼전」 중에서

- ① 동일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된 문장을 사용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는 말이’, ‘말하기를’처럼 인물의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기 위한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서술자가 직접 끼어들어 생각을 말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관권(官權)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아내 김씨의 처세 능력이 돋보인다.
- ② ㉡: 평양에서의 일을 전혀 모르는 척 춘풍을 맞이하며, 춘풍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
- ③ ㉢: 크게 호통을 쳐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며 거만을 부리던 춘풍을 꾸짖고 있다.
- ④ ㉣: 과거 춘풍의 방탕함과 과오를 상기시켜 그 교만함을 비판하던 춘풍을 꾸짖고 있다.
- ⑤ ㉣: 독백의 형식을 활용하여 당시 위정자들의 무능에 대한 백성들의 실망감을 부각하고 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사봉” 문체 정리

핵심 정리

교과서 76-77쪽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고백적, 성찰적, 의지적
- 제재** 유랑하는 삶
-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핵심 정리

교과서 76-77쪽

- 특징** ① 편지 형식을 빌려 화자의 근황을 드러냄.
- ② 토속적인 소재와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함.
- ③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지만, 심표를 통해 내재율을 획득함.

핵심 정리

교과서 76-77쪽

구성

- 1~8행**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
- 9~19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슬픔과 절망
- 20~23행**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
- 24~32행**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꼼꼼 정리

교과서 76-77쪽

● 백석의 유랑

백석은 일본 유학 이후 1945년 신의주를 거쳐 고향 정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일본, 서울, 함흥, 만주 등지로 거처를 옮겨 다녔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그가 나그네와 같은 유랑 생활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꼼꼼 정리

교과서 76-77쪽

● 화자의 처지

- ‘아내도 없고, …… 멀리 떨어져서,’ →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냄.
-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외롭고 고단하게 유랑함.

꼼꼼 정리

교과서 76-77쪽

● 토속적 소재와 사투리의 사용

- 삿, 딜옹배기, 복덕불 등
 - 나가디두 양구, 높은 턴정을, 나춧손에, 어니 먼 산, 바우 섶에 등
-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꼼꼼 정리

교과서 76-77쪽

● 화자의 정서 변화

- 가슴이 짝 메어 옴.
- 눈에 뜨거운 것이 낄.
-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움.
-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낌.

↓ 삶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

슬프고, 한탄하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음.(내면의 안정)

꼼꼼 정리

교과서 76-77쪽

● ‘갈매나무’의 의미

-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섬. 어두워 올 때 하얗게 눈을 맞음.’ → 화자처럼 시련을 겪는 외로운 존재
 - 굳고 정함. →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
- ↓
- 갈매나무** 화자와 동일시되는 동시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표상함.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가족의 해체와 고향의 상실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유랑하는 삶

바로 날도 저물어서,

『』: 객지에서서의 고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깐,

재목의 '박시봉'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 1~8행: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출고, 누긋한 방에서,

열악하고 누추한 환경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무력감

자신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할 듯이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꺾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효함을 달래기 위한 행위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구 자리에 누어서,

외부의 단절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구원기도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과일 적이며,

눈물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괴감에 사로잡힘

심각적 정서가 극대화됨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9~19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슬픔과 절망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상의 전환(회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 암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

운명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

하는 것인데,

▶ 20~23행: 자신의 삶에 대한 문명론적 인식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회자의 내면이 평온을 되찾음

가라앉고, 『』: 운명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감성의 정화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 어느 방안

의지적이고 숙연한 태도가 덧붙임

어니 먼 산 뒷옆에 마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는 갈매나무의 모습 — 외롭고 고단한 상황에 굴하지 않으려는 회자의 모습과 대응함

어두어 오는데 하야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맑고 깨끗한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회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을

▶ 24~32행: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회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냄

— 『학풍』(1948)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유랑 생활 동안 겪은 삶의 비애를 노래하면서도, 높고 강인한 의지를 잃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담은 서정시이다. 제목은 ‘남신의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라는 뜻으로, 편지에 적는 발신인의 주소를 가리킨다. 이 시의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모두 32행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서, 크게 1~19행의 앞부분과 20~32행의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부분에서는 화자가 박시봉의 집에서 홀로 살면서 느끼는 실존적 비애와 고독을 표현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화자가 무기력한 자아를 인식하고 운명과 초월적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새롭게 다지는 삶의 의지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 시의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지내면서 슬프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갈매나무’를 통해 ‘굳고 정한’ 존재로의 상승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이 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에 산문체의 유장한 호흡과 내면의 진정성 있는 고백적 어조가 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 준다. 이 시의 핵심 소재인 ‘갈매나무’는 오랜 슬픔과 고독의 끝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지의 산물로서, 이 작품이 암시하는 희망의 상징이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 작가의 상황,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 여러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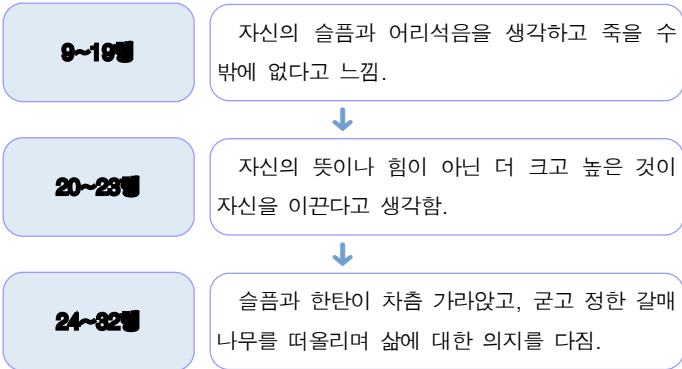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교과서 읽기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화자를 이해해 보자.

(1) 1~8행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

가족과 떨어져 힘겹게 타향을 헤매다가 어느 목수네 집의 누추한 방에 세 들어 살게 되었다.

(2) 이 시에서 화자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2. ‘보기’를 통해 이 시의 작가가 ‘슬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에 드러난 ‘슬픔’을 이해해 보자.

보기

높은 시름이 있고 높은 슬픔이 있는 혼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슬프고 시름 차지 아니하겠습니까. 시인은 슬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 슬퍼할 줄 아는 혼입니다. “외로운 것을 즐기는” 마음도, 세상 더러운 속중(俗衆)을 보고 “친구여!” 하고 부르는 것도, “태양의 등진 거리를 다 떨어진 병정 구두를 끌고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마음도 다 슬픈 정신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슬픈 정신에게야 속된 세상에 가득 찬 근심과 수고와 그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진실로 슬프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탓에 이 가운데서 즐거움이 그 마음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 백석, 「여수 박팔양 씨 시초 독후감」 중에서

이 시의 작가인 백석은 ‘높은 슬픔이 있는 혼’은 복되며, ‘슬픔’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의 ‘슬픔’은 화자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더 크고, 높은’ 존재에 의해 운명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깨달은 화자의 내면은 슬픔이나 한탄 등이 가라앉아 평정을 찾게 된다.

3. ‘보기’는 이 시와 관련성을 지닌 단편 소설의 일부이다.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보기

전제 줄거리 ▶ 이혼의 상처를 지닌 시인 두현은 오 년 만에, 아내와 교제하던 때 자주 들르던 교외의 한 찻집을 찾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곳을 나와, 비를 몰아오는 먹구름을 본 두현이 마구 달리기 시작했을 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시상이 터져 나온다.

에이, 시시해. 그럼 전 부인은 진짜 유학을 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아뇨. 요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편이죠.

나무요?

나무입니다. 아주 험걸차고 씩씩한 녀석이죠. 바로 수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수딴그루 나무인 건 아시죠?

암수딴그루라뇨?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 온 건 모두 암그루였죠. 아직 수그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끄웃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그루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앓을 땐 내가 직접 그 수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 김소진, 「갈매나무를 찾아서」 중에서

(1)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인물인 두현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자.

이 시의 화자가 아내도 집도 없이 타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기’의 두현 역시 이혼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

(2) 이 시의 ‘갈매나무’와 ‘보기’의 ‘갈매나무’가 지닌 공통적 기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 시와 ‘보기’의 ‘갈매나무’는 모두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단원 설명

교과서 · 76쪽 1~4행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었다.

- 화자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서술하며 시상을 열고 있다. 화자가 객지를 방랑하게 된 연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당면한 현실적 고난과 외로움이 부각된다.

교과서 · 76쪽 10행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만큼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무력감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문밖에 나가지도 않는 폐쇄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교과서 · 76쪽 19행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화자는 절망감이 극대화되어 자신의 처지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을 유랑하고 있는 화자가 현실로부터 상처 입고 무력감과 슬픔, 자괴감에 짓눌려 비애와 자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 76쪽 20~23행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중략)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죽음을 떠올린 위기의 순간에 화자는 고개를 들어 문창이나 천정을 바라보며 외부의 세계에 눈길을 돌리게 되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님을 깨닫는다. 화자는 현재 자신이 놓인 외롭고 슬픈 삶이 ‘더 크고, 높은’ 존재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운명론적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화자의 정서가 절망감에서 삶에 대한 의지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교과서 · 77쪽 25행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비애와 자탄으로 번민했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내면이 평온을 되찾고 있다. 그런데 ‘가라앉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이나 한탄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단지 화자 스스로 그러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교과서 · 77쪽 29~32행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중략)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마음을 다잡고 생의 의욕을 가져 보려 하는 화자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자신의 신산한 삶을 견뎌 내고자 한다. 갈매나무는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갈매나무의 모습은, 외롭고 고단한 화자의 현재 상황과 대응된다. 그러나 그 갈매나무가 '굳고 정한' 존재라는 점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의지와 고결한 정신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덮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
 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
 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사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
 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2개를 고르면?

- ① ㉠: 제목에 언급된 인물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현실감을 주고 있다.
- ② ㉡: 아내도, 집도 없고 부모, 형제와도 헤어져 살고 있던 화자가 자괴감에 빠지는 공간이다.
- ③ ㉢: 운명적 존재에 대한 인식 이후에 화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확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낮부터'라는 의미를 지닌 방언으로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는 시어로 활용되고 있다.
- ⑤ ㉤, ㉥: 화자의 고난과 시련을 심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서울)

2. ㉫'갈매나무'가 가진 의미를 <보기>의 빈칸을 통해 채워 서술하시오. (단, ①은 본문에서 찾아 쓸 것. ①, ②는 2어절로 ③은 1어절로 답할 것.)

<보기>

이 시에서 화자는 ㉫을 통해 (①) 존재로의 상승을 다짐하는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을 상상하며 슬픔과 고독에 빠져 있던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로서 (②)을/를 떠올리는 것이다. 결국 ㉫은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희망'을/를 함축하고 있는 (③)적 소재라 할 수 있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적 배경을 겨울로 설정한 것은 시적 화자가 처한 고달프고 힘든 현실을 부각하기 위함이 아닐까
- ② ㉨: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시적화자가 무기력감에 빠진 것으로 보여.
- ③ ㉩: 죽음과 같은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시적 화자의 절망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아.
- ④ ㉪: 불행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불운과 대결하려는 강한 의지야말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 ⑤ ㉫: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려는 경건한 태도가 느껴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묵수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죄를 불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깍지 베크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강일고등학교 (서울)

4.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담담하고도 짧은 호흡으로 고백적 어조를 잘 살리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당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표현 등을 통해 화자의 심적 갈등 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편지에 적는 주소 형식의 제목이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을 떠올리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대상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하이야니', '쌀랑쌀랑' 등을 통해 생기 있는 대상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음을 쉽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가 희망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6. 위 작품에서 시상의 전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의 시행 전체를 쓰시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의 사용으로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산문체의 이어진 문장으로 시적 정황들을 보다 내밀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의성어의 반복 사용으로 활기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쉽표의 반복 사용으로 암울한 분위기와 정서에 어울리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반복 사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며,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세한도” 문맥 명칭

핵심 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현실적, 묘사적, 감각적
- 제재** 농촌의 현실
-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

핵심 정리

- 특징** ① 김정희의 「세한도」를 차용함.
 ② ‘청솔’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나타냄.
 ③ ‘청솔’, ‘푸른’, ‘꼭두서니빛’ 등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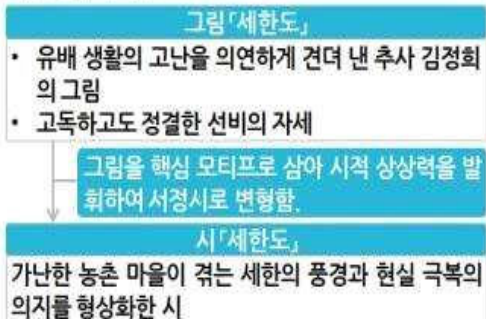
핵심 정리

구성

- 1연 초라한 농촌 마을에 곳곳이 서 있는 청솔
- 2연 활기찼던 과거와는 달리 피폐해진 농촌 현실
- 3연 농촌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울분
- 4연 황폐한 현실을 이겨 내려는 사람들의 모습
- 5연 고난과 서러움에도 곳곳함을 간직한 청솔
- 6연 힘겨운 현실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

꼼꼼 정리

● 미술 작품의 차용



꼼꼼 정리

● 시에 반영된 농촌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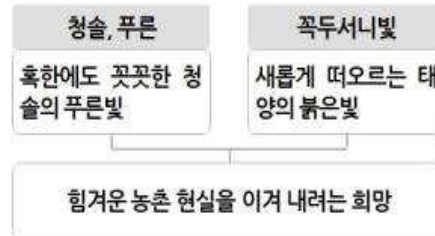
-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
-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 ‘난장 난 비닐하우스’

↓

혹독한 시련 속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의 현실

꼼꼼 정리

●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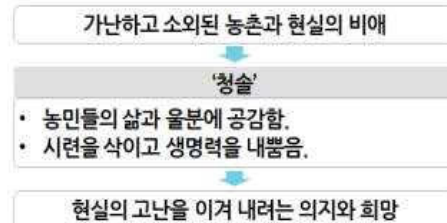
꼼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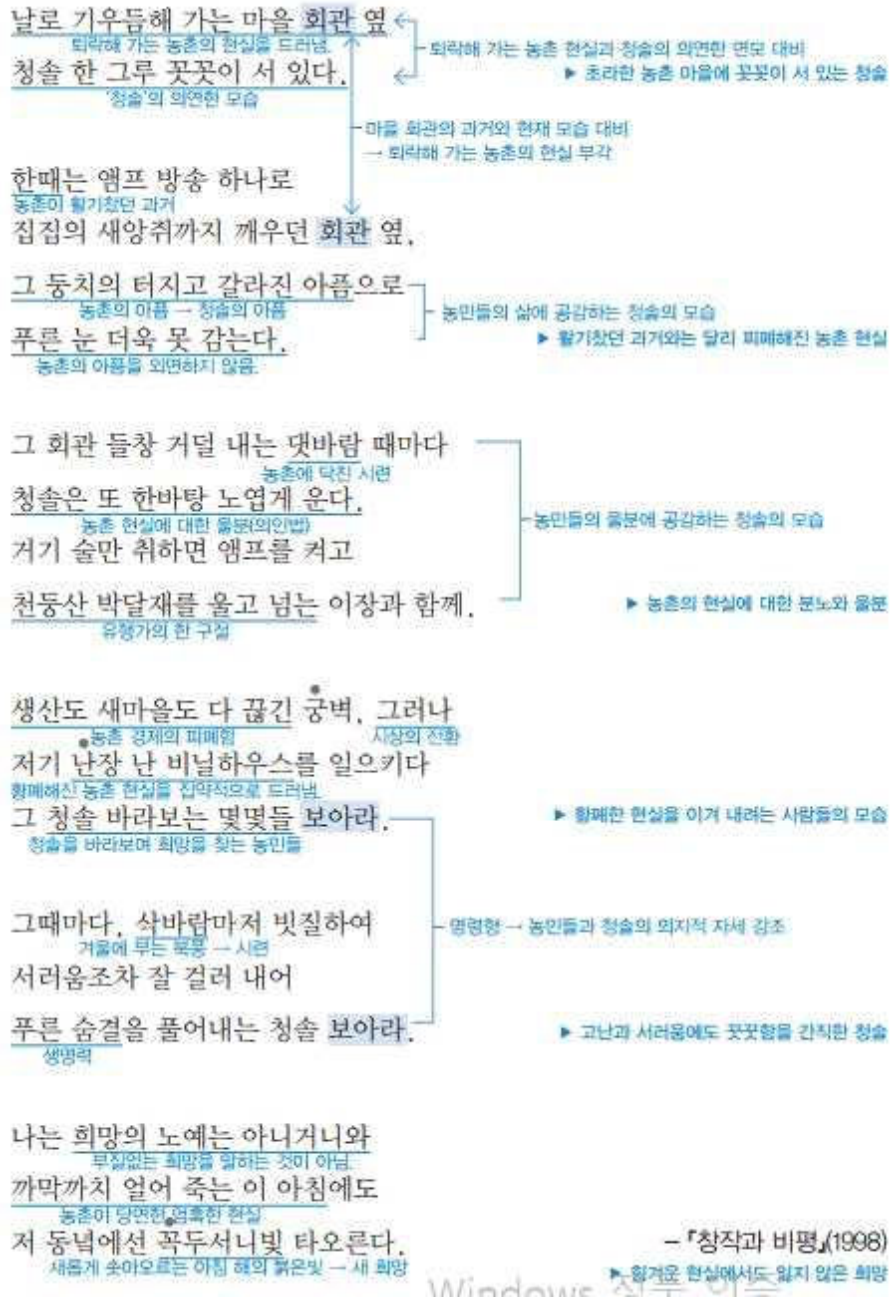
● 김정희의 유배 생활과 「세한도」

명성 높은 학자였던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힘겹고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제자인 이상적이 청나라에서 어렵게 구해 보내 준 서적을 받곤 했다. 유배 전이나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대하는 제자에게 감동한 김정희는 그에게 보답으로 「세한도」를 그려 보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집 한 채와, 소나무와 잣나무 몇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의리와 절개를 겨울에도 늘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꼼꼼 정리

● 시상의 전개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고난을 의연하게 견뎌 낸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 「세한도」를 핵심 모티프로 하여, 가난한 농촌 마을이 겪는 세한의 풍경을 형상화한 서정시이다. 이 시에서는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처럼 어려운 농촌 현실을 제시한 후, 이를 이겨 내려는 희망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한 농촌 현실은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댯바람”과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마을 회관 옆에 곳곳이 서 있는 ‘청솔’은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준다. 즉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의 처지에 있는 농촌의 비애를 노래하면서도, ‘청솔’과 ‘꼭두서니빛’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공감과 일체감을 높이고 있으며, 명령적 어조를 통해 고난을 이겨 내려는 의지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에 나타난 고독하고도 정결한 선비의 자세를 서정시로 변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작품의 상호 소통을 통한 창의적 생성이 실현된 것이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미술 분야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매체 변용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세한도” 그리신 방법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를 감상에 보자.

(1) 이 시에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시구들을 찾아보자.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댛바람’, ‘술만 취하면 앵프를 켜고 /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난장 난 비닐하우스’ 등

(2) 이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구절에서 ‘청솔’이 어떠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	농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댛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는 존재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	고난과 슬픔을 삭이고 버티며 생명력을 발산하는 존재

(3) 4연의 그러나를 기준으로, 시의 어조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자.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평서형 종결 표현에서 명령형 종결 표현으로 변화를 줌으로써 담담한 어조에서 힘 있는 어조로 바뀌고 있다. 또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분위기에서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4) 앞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연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라는 시구에서, 화자가 말하는 희망이 부질없고 허황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까막까지 얼어 죽는’ 엄혹한 세한(歲寒)의 아침에도 동녘에서 해가 떠올라 ‘꼭두서니빛’이 타오르듯이, 황폐한 농촌의 현실에서도 ‘청솔’과 같은 생명력과 의지가 있다면 결국에는 어둠을 이기고 희망의 날을 열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다음은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과 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사제 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온 제자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논어의 구절을 주제로 삼아,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1) 이 시와 그림 「세한도」에 표현된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 시와 그림 「세한도」는 공통적으로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소나무의 곳곳한 면모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선비의 의리와 절개를 그린 그림 「세한도」와 달리, 이 시에서는 황폐화된 농촌의 모습과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 그림을 차용하여 이 시를 창작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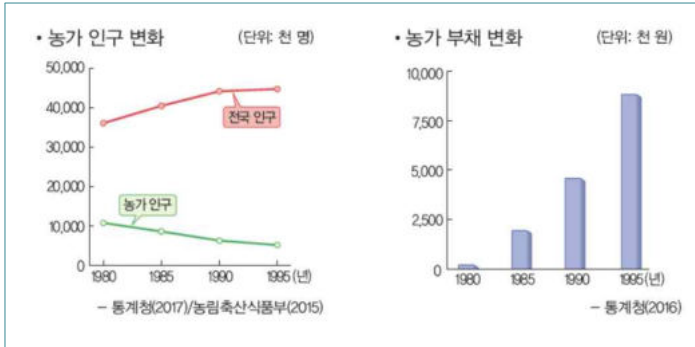
힘겨운 유배 생활을 의연하게 견뎌 내는 정결한 지조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선비의 절개를 형상화한 그림 「세한도」를 차용하여 이 시를 창작함으로써, 힘겨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3) (1)과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분야로서 그림과 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힘겨운 유배 생활을 의연하게 견뎌 내는 정결한 지조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선비의 절개를 형상화한 그림 「세한도」를 차용하여 이 시를 창작함으로써, 힘겨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3. '보기'는 이 시가 창작될 무렵의 농가 인구 변화와 농가 부채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해 보자.

보기



(1) '보기'의 자료를 통해 농촌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보기'의 자료를 보면 농가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농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람도 줄어들어 점차 퇴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처럼 황폐한 농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이 시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시가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한 점에서, 사회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세한도” 두 편의 문인

교과서 · 84쪽 1연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 옆 /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 '마을 회관 옆'에 '청솔'이 서 있는 장면을 통해, 이 시가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를 모티프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우뚱해 가는'과 '곳곳이 서'를 병치하여, 쇠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과 의연한 청솔의 면모를 대비하고 있다.

교과서 · 84쪽 2연

한때는 앵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 앞의 두 행에서는 활기찼던 과거의 마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모습과 대비되어 퇴락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더욱 부각한다. 뒤의 두 행에서는 농민들의 삶에 공감하며 피폐한 농촌 현실에 아파하는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청솔'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농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청솔'의 면모가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로 표현되고 있다.

교과서 · 84쪽 3연

그 희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저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 천동산 박달재를 올고 넘는 이장과 함께.

- ‘댕바람’은 농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외적 요소들을 환기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노엽게 우는 ‘청솔’은 농민들과 함께 아파하고 노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술만 취하면’ 울며 힘겹게 고개를 넘는다는 내용의 유행가를 부르는 이장과 ‘함께’라는 것 역시 농민들의 울분에 공감하는 존재인 ‘청솔’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 84쪽 4~5연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난장 난 비닐하우스’는 농촌의 빈곤과 황폐함을 나타내는데, 농민들(‘몇몇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며 혹한에도 푸른 ‘청솔’을 바라본다. 이러한 농민들의 태도에 조응하듯이 ‘청솔’은 고통(‘삭바람’)을 삭이고 서러움을 걸러 내며 생명력(‘푸른 숨결’)을 내뿜고 있다. 화자가 이를 ‘보아라’라는 명령 형으로 표현한 것은 농민들과 청솔의 의지적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 84쪽 6연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앞부분에서 농촌 마을과 ‘청솔’을 관망하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나’로 표면화된다. ‘희망의 노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황폐화된 농촌 현실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허황된 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민들과 ‘청솔’의 굳센 의지가 있기에, 화자는 혹독한 세한(歲寒)의 현실에서도 동녘에서는 ‘꼭두서니빛’이 타오르는 아침이 오고 있다며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온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나와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고른다.

-고재종, '세한도'

(나)



'세한도'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사제 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온 제자에게 그려 준 그림이다.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라는 논어의 구절을 주제로 삼아,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 내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실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묘사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푸른 빛과 붉은 빛의 대립적 색채로 의미의 대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평서형 종결 표현에서 명령형 종결 표현으로 변화를 주어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접속어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이루고 황폐한 현실을 이겨 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2. (가)와 (나)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서의 소나무는 현실 극복 의지를 표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대상과의 공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관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흑독한 시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예술로서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⑤ (가)가 황폐화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모습을 담아내려 했다면 (나)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고자 했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보기>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이 시에서 시인은 대상과의 공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청솔'을 (㉠)화하는 표현기교를 활용하고 있으며, (㉡)적 어조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려는 의지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탕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고른다.

-고재종, '세한도'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a.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b. 어조의 전환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다.
c. 의인법을 통해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d.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현실의 모습을 환기한다.
e.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① a, b ② b, c ③ d, e
④ b, c, d ⑤ c, d, e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5.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시구를 2개 찾아 쓰시오.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상황을 과장하여 활기차던 농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② ㉡: '청솔'의 몸에 나 있는 상처로 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함축하고 있다.
③ ㉢: 퇴락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장의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 희망을 갈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체념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힘겨운 현실에서도 새롭게 떠오를 희망을 암시한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위 시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신경림, '농무'

- ① 위 시의 '난장 난 비닐하우스'와 <보기>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는 점점 무너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다.
② 위 시의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와 <보기>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황폐해져 가는 농촌에 대한 농민들의 서러움, 울분을 느낄 수 있다.

- ③ 위 시와 달리 <보기>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구절을 통해, 분노를 삭이면서 오히려 더욱 신명을 내는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보기>와 위 시는 모두 힘겨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모두 독자로 하여금 농촌문제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8. <보기>는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이다. 그림과 위 시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 시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삶을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② 위 시는 <보기>와 달리 청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위 시는 <보기>에 없는 비닐하우스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추가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심화한다.
- ④ 위 시와 <보기>는 한겨울이라는 계절적인 배경과 소나무라는 소재 측면에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 ⑤ <보기>를 차용하여 위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농촌 마을의 가난한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현대청운고등학교 (울산)

9. <보기>의 밑줄 친 대상과 유사한 소재를 위 시에서 찾고 공통적인 이미지와 기능을 서술하시오.

<보기>

나뭇잎입니다. 아주 험겍차고 짙직한 녀석이죠. 바로 수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수딴그루 나무인 건 아시죠?
 암수딴그루라뇨?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 온 건 모두 암그루였죠. 아직 수그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곳곳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그루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앓을 땐 내가 직접 그 수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꿉요.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꿉요.
 - 김소진, 「갈매나무를 찾아서」 중에서

김해울학교 (경남)

10.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이 농민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푸른색과 붉은색을 대비하여 상반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접속 부사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 ④ 모티프가 되는 그림과 그림에 얽힌 사연을 시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장돌뱅이 무렵” 품격 정리

핵심 정리

교과서 94~95쪽

- 갈래** 애니메이션
- 성격** 서정적, 낭만적
- 배경** 어느 여름 봉평 장터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산길
- 주제** 장돌뱅이 생활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

핵심 정리

교과서 94~95쪽

- 특징** ① 원작의 서사를 따르면서 향토적 분위기를 잘 드러냄.
- ② 원작에서 대화로만 처리된 장면을 시각화하여 직접 보여 줌.
- ③ 아름다운 화면과 효과 음악을 통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장돌뱅이의 의미

장돌뱅이는 여러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인 '장돌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허생원이 장돌뱅이라는 점은 그가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장터로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배경 묘사의 효과

달밤 달빛 아래 메밀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경

-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함.
- 허생원이 추억을 회상하게 함.
- 허생원과 성씨 처녀의 인연을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림.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원작과의 차이점 ①

원작	애니메이션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됨.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가 직접적인 장면으로 제시됨.

회상 장면을 구체화하여 생생하게 전달함.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원작과의 차이점 ②

원작	애니메이션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음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허생원 : (동이의 뒷모습을 보며) 부럽구먼.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 주니……"

인물의 심리가 서술자를 통해 제시됨.

인물의 심리가 대사를 통해 제시됨.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원작과의 차이점 ③

원작	애니메이션
조 선달의 행위나 대화가 거의 서술되지 않음.	조 선달의 행동과 대사를 구체적으로 보여 줌.

장면을 추가하여 극적이고 현장감 있게 제시함.

꼼꼼 정리

교과서 94~95쪽

● '전 망나니'의 의미

'망나니'는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전 망나니'는 '완전히(全)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錢)망나니'는 북한어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꼼꼼 정리

교재 90-92쪽

● 생략된 원작의 내용

허생원이 동이의 등에 업혀 혈육의 정을 느끼는 부분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넌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원작에서는 허생원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제시되었으나, 애니메이션에서는 허생원의 표정 묘사로 대체됨.

꼼꼼 정리

교재 90-91쪽

● 나귀의 상징성

나귀는 장돌뱅이인 허생원과 함께 오랫동안 장터를 떠돈 동반자이자, 허생원처럼 늙고 불품 없어졌다는 점에서 허생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나귀가 새끼를 얻었다는 것은, 허생원이 자식을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꼼꼼 정리

교재 99쪽

● 봉평과 제천

이 작품에서 봉평은 성씨 처녀의 고향이자, 허생원이 소중하게 간직한 추억의 공간이다. 반면 제천은 성씨 처녀가 홀로 아이를 낳고 쫓겨난 공간이며, 힘겨운 인생 역정을 거쳐 홀로 살아가는 공간이다. 어머니를 봉평에 모셔와 함께 살고자 하는 동이의 바람을, 두 공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꼼꼼 정리

교재 90-92쪽

● 원작과의 차이점 ④

원작	애니메이션
동이가 왼손잡이임을 발견하는 장면이 서술을 통해 간결하게 제시됨.	동이가 왼손잡이임이 드러나는 장면이 시각적 묘사와 대사를 통해 제시됨.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하는 원작의 의도를 살리면서 감각적으로 표현함.

꼼꼼 정리

교재 99쪽

● 이동 경로에 따른 내용 전개

산길 허생원이 성씨 처녀와의 인연을 이야기함.

큰길 동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함.

개울 동이의 모친에 대해 들은 허생원이 물에 빠지자, 동이가 그를 업고 개울을 건넌.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작품은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재창작한 애니메이션이다. 원작 소설은 강원도 산간 지방을 떠도는 장돌뱅이의 삶을 서정적인 문체로 그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은 원작 소설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면서 향토성 짙은 분위기를 잘 살려 내고 있다. 작품의 서사는 장돌뱅이인 허 생원과 동이의 갈등과 화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장이 끝나고 술집에 들른 허 생원은 젊은 장돌뱅이 동이가 충죽집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심하게 나무란다. 그날 밤 허 생원, 조 선달, 동이는 다음 장이 서는 대화까지 함께 이동하게 된다. 메밀밭을 지나면서 허 생원은 조 선달과 동이에게 성씨 여인과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이야기한다. 충죽집에서의 일을 사과한 허 생원은 동이의 내력을 듣고 동이의 어머니가 성씨 여인이 아닌지 추측하게 된다. 동이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된 허 생원은 동이가 자신처럼 왼손잡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 작품은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삶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승화한다. 특히 허 생원은 동이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육친의 정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등장인물과 나귀가 달빛 아래 메밀밭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장면은 이러한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애니메이션 「메밀꽃 필 무렵」은 영상 매체가 갖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화면을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인물들의 움직임과 대사, 음향 등을 통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이 작품을 통해 독자는 같은 이야기를 소설로 읽을 때와 영상으로 볼 때의 감상을 비교할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 크리틱 워크시트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1) 이 작품 속 주요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자.

허 생원	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하지 않고 장돌뱅이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다. • 젊은 시절 봉평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은 성씨 처녀를 그리워한다. • 왼손잡이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부를 모르고 자라,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 젊은 장돌뱅이로, 친정이 봉평인 홀어머니를 봉양하려 생각하고 있다. • 왼손잡이이다.

(2) 이 작품의 소재와 배경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나귀*라는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암시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나귀는 장돌뱅이인 허 생원의 동반자이자, 허 생원과 동일시되는 존재이다. 나귀가 새끼를 얻은 것은 허 생원도 어딘가에 자식을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한다.

● 이야기의 배경을 파악하고, 사건 진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시간적-공간적 배경	역할
메밀꽃이 하얗게 핀 달밤,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산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밀꽃이 핀 달밤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 이어 준다. • 아름다운 메밀밭 풍경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길고 고즈넉한 산길은 인물 간의 대화를 이끌어 내어 각자의 과거 내력을 밝히게 한다.

(3) 결말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p>허 생원: (V.O. 채찍을 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며) 동이, 자네…….</p> <p>동이: (V.O. 허 생원의 얼굴에서) 네?</p> <p>허 생원이 쳐다보면 저만치 언덕을 올라가던 동이가 멈춰선 채 이쪽을 돌아본다. (E. 나</p>	<p>귀 울음소리)</p> <p>허 생원: 아, 아닐세.</p> <p>나귀를 이끌고 동이가 서 있는 언덕길을 오르는 허 생원.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PAN. 메밀꽃들에서 멀리 메밀밭을 지나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F.O.</p>
--	---

특징 허 생원과 동이의 부자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나는 열린 결말이다.



효과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여운을 준다.

2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원작과 비교해 보고, 매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아래에 보자.

	<p>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p> <p>“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p> <p>“생원도 제천으로?”</p> <p>“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p> <p>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p> <p>걸음도 해깁고 방울 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p> <p>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p> <p>-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p>
--	---

(1) 애니메이션 작품과 원작 소설의 내용 및 표현을 비교해 보자.

- 원작에서는 허 생원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제시되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표정이나 어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이 작품에서는 원작에 없던 대사를 추가하여 인물의 내면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손을 클로즈업하거나 두 사람의 얼굴을 겹치게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원작

의 의도를 살리고 있다.

•원작에서는 배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였으나, 이 작품에서는 배경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효과음을 삽입하여 장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된 이 작품을 감상하며,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자.

인쇄 매체로 창작된 원작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서술 내용을 통해 작품 속 장면들을 상상하며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반면 인물이나 배경을 시각화하고 성우의 대사 연기, 배경 음악, 영상 기법 등을 활용한 이 작품에서는 시청각적으로 보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메밀꽃 필 무렵” 읽기 용 문제

1. 세 사람의 대열 형태가 변하면서 인물 간의 소통이 어떻게 바뀌는가?

허 생원 일행이 좁은 산길을 지날 때는 세로로 줄을 지어 갔기 때문에 대열의 끝에 있던 동이의 대화 참여가 제한되었다. 그런데 큰길로 들어서서 세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걷게 되자, 동이와 허 생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2. 허 생원이 동이에게 모친에 대해 연거푸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 생원은 동이로부터 그의 모친의 내력과 고향에 대해 듣고, 동이의 모친이 성씨 처녀일지도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다.

3. 화면에서 동이와 허 생원의 채찍 든 손을 연이어 보여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이와 허 생원이 모두 왼손잡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독자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8. 물방앗간(밤)

방앗간 옆에서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허 생원(NAR.):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방앗간에 들어선 허 생원. 어두컴컴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옷을 벗으려다가 처녀의 웃음소리에 놀라 넘어지며, “엇, 어어! 아이고!”

허 생원(NAR.):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황급히 바지를 올린 허 생원이 당황하여 “개, 개 누구요?” 하고 묻자, 성 서방네 처녀도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허 생원(NAR.): (눈물 흘리는 처녀의 얼굴에서)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중략>

S# 21. 메밀밭 사이의 큰길(밤)

동이가 “이랴!” 하며 나귀를 재촉해 앞으로 나서자, ㉡세 사람은 횡대로 걷기 시작한다.

허 생원: 총각도 짝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죽집에 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동이: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손 내리며)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고개 돌리며) 자나 깨나 전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V.O. 조 선달과 허 생원의 모습 위로)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허 생원: (M.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그래, 돌아가셨나?

동이: 당초부터 없어요.

조 선달: 에이, 그런 법이 세상에. 허허허.

허 생원: 그러게. 허허허.

동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이에요. (V.O. 언덕길에 들어서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귀에서 내리며)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와요.

<중략>

S# 24. 건너편 개울가(밤)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이의 등에서 내린 허 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이의 등을 토닥인다.

조 선달: 진종일 실수만 하니 어쩐 일이오, 생원? 으하하.

허 생원: (물에 젖은 윷도리를 벗으며 조 선달의 놀림에 변

명을 한다.) 나귀야! 나귀.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V.O. 풀을 뜯는 나귀들) ㉣저 풀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헤헤헤. (㉤ 나귀 방울 소리, 울음소리)

허 생원: (옷을 비틀어 물기를 짜내며)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V.O. 바지를 터는 동이의 모습 위로)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조 선달: 사람을 물에 빠트릴 쟈 탄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 (윷도리를 걸치고 몸을 추스르며)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물 끓여 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

조 선달: (입에 문 곰방대를 빼고 연기를 뿜으며) 후우. ㉥아, 생원도 제천으로?

허 생원: (나귀에 실은 짐을 갈무리하며)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고개 돌린 후) 동행하려나, 동이?

동이: (V.O. 나귀의 고삐를 잡고 서 있는 동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허 생원의 얼굴에서) 네? 저야 가는 길이니깐요.

동이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 것을 본 허 생원의 놀란 표정. (M.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돌아서는 동이의 얼굴에 성씨 처녀의 얼굴이 겹친다.

허 생원: (V.O. 채찍을 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며) 동이, 자네…….

동이: (V.O. 허 생원의 얼굴에서) 네?

허 생원이 쳐다보면 저만치 언덕을 올라가던 동이가 멈춰 선 채 이쪽을 돌아본다. (㉦ 나귀 울음소리)

허 생원: 아, 아닐세.

나귀를 이끌고 동이가 서 있는 언덕길을 오르는 허 생원.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 메밀꽃 들에서 멀리 메밀밭을 지나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효석 원작, 안재훈 각색, ‘메밀꽃 필 무렵’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울)

1. <보기>를 참고로 ㉠,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보기>
㉠: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촬영기를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
㉢: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처음에 밝았다가 점차 어두워지는 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장돌뱅이로 늙은 허 생원은 봉평 장이 서던 날 조 선달과 충춧집에 갔다가 동이라는 젊은이가 충춧떡과 농지거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려 쫓아 버린다. 허 생원의 나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후, 허 생원과 조 선달, 동이는 칠십 리 떨어진 대화 장터까지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걸어가게 된다.

S# 10. 산길(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길을 지나는 허 생원 일행. 밝은 달빛에 사방이 온통 부른 빛깔이다.(PAN. 달이 뜬 하늘에서 메밀밭으로)

허 생원: (V.O. 멀찌감치 메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일행 위로)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조 선달: 또 시작이구먼. (뒤따라오는 동이를 돌아보며) 저 애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허 생원: (V.O. 나귀를 탄 동이의 모습에 이어 메밀밭 풍경 위로)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맞거든. 장이 선……, 꼭 이런 밤이었네.

S# 11. 산길(밤)

객줏집 토방에서 잠을 자던 젊은 허 생원.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어유, 더워.” 하며 손부채질을 한다.

허 생원(㉠):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와야 말이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이라도 해 볼 요량으로 나섰지.

허 생원이 더운 방 안에서 뒹그러나간다.

S# 21. 메밀밭 사이의 큰길(밤)

동이가 “이랴!” 하며 나귀를 재촉해 앞으로 나서자, ㉠세 사람은 횡대로 걷기 시작한다.

허 생원: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렀다. 충춧집에 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쉽게 생각 말게.

<중략>

동이: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이에요. (V.O. 언덕길에 들어서서 세 사람의 모습 위로)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귀에서 내리며)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왔요.

뒤따라 나귀에서 내린 ㉡허 생원이 동이 쪽을 지긋이 바라본다. “여차!” 하며 동이가 나귀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허 생원이 힘겹게 뒹그러나간다.

허 생원: 헉, 헉, 아이고. (앞서 걷는 동이의 뒷모습

[A] 을 보며) 부럽구먼.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 주니……. 헉헉.

조 선달: (힘들어하는 허 생원을 지나치며) 고개 너머 개울이니 힘 좀 쓰세.

S# 23. 개울가(밤)

㉢개울물에 들어선 동이와 허 생원이 물을 가르며 걷기 시작한다.

<중략>

허 생원: 어! (조 선달을 향해 대답한 뒤, 다시 동이를 보며)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던가?

동이: (뒤쳐진 허 생원에 보조를 맞춘다.) 웬걸요. 시원스레 맑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허 생원: ((㉣)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봉평……. 그 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동이: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허 생원: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 그럴겠지. (㉤눈앞이 흐릿해진다. 손으로 눈을 비비다가 순간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고꾸라진다.) 어? 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어푸어푸.

동이: 허 생원에게 급히 다가가며) 생원! 생원! 괜찮으세요? (허 생원을 부축하여 물속에서 끌어 올린다.) 이리 저를 잡고 좀 서 보세요.

<중략>

허 생원: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동이: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허 생원: 지금 어디 계신가?

동이: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묻고 별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허 생원: (V.O. 허 생원을 업은 동이가 개울물을 건너는 모습에서) ㉥아무렵.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S# 24. 건너편 개울가(밤)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이의 등에서 내린 허 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이의 등을 토닥인다.

조 선달: 진종일 실수만 하니 어떤 일이오, 생원? 으하하.

허 생원: (물에 젖은 윗도리를 벗으며 조 선달의 놀림에 변명을 한다.) 나귀야! 나귀.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V.O. 풀을 뜯는 나귀들) 저 풀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헤헤헤. (E. 나귀 방울 소리, 울음소리)

<중략>

허 생원: (나귀에 실은 짐을 갈무리하며)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고개 돌린 후) 동행하려면, 동이?

동이: (V.O. 나귀의 고삐를 잡고 서 있는 동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허 생원의 얼굴에서) 네?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동이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는 것을 본 허 생원의 놀란 표정. (M.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며) 돌아서

[B] 는 동이의 얼굴에 성씨 처녀의 얼굴이 겹친다.

허 생원: (V.O. 채찍을 든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며) 동이, 자네…….

동이: (V.O. 허 생원의 얼굴에서) 네?

허 생원이 쳐다보면 저만치 언덕을 올라가던 동이가 멈춰 선 채 이쪽을 돌아본다. ((㉔) 나귀 울음소리)

허 생원: 아, 아닐세.

나귀를 이끌고 동이가 서 있는 언덕길을 오르는 허 생원.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㉕) 메밀꽃들에서 멀리 메밀밭을 지나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F.O. -이효석 원작, 안재훈 각색, '메밀꽃 필 무렵'

작전고등학교 (인천)

5.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횡대로 걷게 되면서 이후 나오는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세 사람이 모두 공유하게 된다.
- ② ㉒: 충죽집에서 동이에게 한 실사가 계속 마음에 남아 미안한 마음에 동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③ ㉓: 허 생원과 동이 두 사람이 함께 개울을 건너게 되면서 허 생원은 동이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 ④ ㉔: 물 속으로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나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 ⑤ ㉕: 가을이 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작전고등학교 (인천)

6. 달밤과 나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밤은 시각적으로, 나귀는 시청각적으로 제시된다.
- ② 달밤은 작품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만드는 배경이다.
- ③ 나귀는 허 생원에게도 자식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 ④ 나귀는 늙고 불품없다는 점에서 허 생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 ⑤ 달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며, 나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작전고등학교 (인천)

7. <보기1>과 <보기2>는 각각 [A], [B]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의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허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씻어내렸다.

<보기2>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 ① <보기1>과 [A] 모두 허생원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군.
- ② [B]에서는 원작에 없던 음악과 시각적 묘사를 통해 서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군.
- ③ <보기1>, <보기2>보다 [A], [B]로 작품을 접할 때, 독자의 상상력이 더욱 요구되는군.
- ④ [B]에서는 원작에 없던 대사를 추가하여 원작의 의도와 다르게 허 생원의 실망감을 드러내는군.
- ⑤ <보기2>에서 동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허 생원이 발견 하는 것으로 보아, 원작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군.

작전고등학교 (인천)

8. ㉑~㉕에 들어갈 시나리오 용어로 알맞은 것은?

	㉑	㉒	㉓	㉔
①	V.O	NAR.	M.	F.O
②	NAR.	E.	M.	PAN.
③	V.O	M.	NAR.	PAN.
④	NAR.	M.	E.	PAN.
⑤	NAR.	E.	M.	F.O

세명고등학교 (경북)

9. '달밤'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묘사로 서정적,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 ② 허 생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 ③ 허 생원과 동이가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④ 허 생원과 동이가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순수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작품의 서사진행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서사 구조를 읽는 기능을 한다.

I.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1.④ 2.생명체의 안식처를 위해 산수유나무가 만들어 낸 공간임 3.⑤ 4.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 5. ⑤ 6.④ 7.② 8.④ 9.⑤ 10.의인법, 다른 생명에게 휴식과 위안을 베풀. 11.④ 12.⑤ 13.④ 14.④ 15.③ 16. ① 17.① 18.④ 19.⑤ 20.③ 21.⑤ 22.㉠: 그늘 농사 ㉡: 대조 23.④ 24.④ 25.③ 26.② 27.③ 28.④ 29.② 30.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I. ② 서경별곡

1.③ 2.③ 3.② 4.① 5.② 6.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7.① 8.⑤ 9.② 10.⑤ 11.② 12.화자는 시어 '여히르른'에서 이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에서 임을 따라가겠다고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③ 14.우리곰 좃니노이다 15.⑤ 16.②③⑤ 17.⑤ 18.① 19.⑤ 20.④ 21.② 22.⑤ 23.④ 24.④ 25.② 26.① 27.이별의 정한 28.② 29.③ 30.⑤ 31.② 32.④ 33.③ 34.① 35.② 36. ② 37.⑤ 38.④ 39.①

I. ③ 나상

1.⑤ 2.③ 3.전쟁의 폭력성과 인간성 상실을 나타냄. 4.③ 5.①④ 6.1인칭 관찰자 시점 7.㉠: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 인간의 소중함 8.① 9.① 10.② 11. ① 12.②④ 13.② 14.⑤ 15.④ 16.③ 17.② 18.② 19. ① 20.④ 21.① 22.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이 내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외부 이야기에서 삶의 자세를 고민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주제가 전쟁의 비극성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삶의 자세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23.① 24.② 25.③ 26.④ 27.② 28.④ 29.③ 30.① 31. ② 32.⑤ 33.② 34.⑤ 35.④ 36.액자 구성을 통해, 근원적 인간성의 소중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나타냄. 37.② 38.③ 39.② 40.⑤ 41.③ 42.② 43.③ 44.③

I. ④ 북어 대가리

1.② 2.① 3.⑤ 4.① 5.① 6.② 7.③ 8.③ 9.② 10.⑤ 11.⑤ 12.⑤ 13.① 14.② 15.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문제 삼음. 16.③ 17.③ 18.⑤ 19.의붓어미, [의붓어미] 20.② 21.⑤ 22.③ 23.두 작품 모두 산업 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다. / '보기'는 화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반면, 이 희곡은 등장 인물 간의 갈등 속에 전개되는 사건과, 해설, 지문, 대사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한다. 24.① 25.① 26.② 27.③ 28.⑤ 29.⑤ 30.④ 31.② 32.자양: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줌. / 운전수: 신뢰할 수 없는 대상,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33.⑤ 34.③ 35.④ 36.운전수는 분배반장을 딸기코로 부르고, 접수 반장은 외눈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둘은 운전수를 노름꾼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익명성을 갖고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함. 37.③ 38.④ 39.북어 대가리 40.④ 41. ④ 42.①

I. ⑤ 나와 남

1.⑤ 2.① 3.① 4.④ 5.④ 6.④ 7.⑤ 8.② 9.④ 10.④ 11.신뢰성을 높임. 12.③ 13.② 14.④ 15.③ 16.⑤ 17. ⑤ 18.⑤

II. ① 이춘풍전

1.④ 2.② 3.③ 4.④ 5.③ 6.② 7.①③ 8.⑤ 9.④ 10.⑤ 11.② 12.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려고 그리했지 13.① 14.⑤ 15.④ 16.아내에겐 교만하며 비장예겐 존대함. 17.④ 18.⑤ 19.③ 20.⑤ 21.④ 22.② 23.① 24.매질 앞에서도 쉽사리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점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음. 25.⑤ 26.③ 27. ① 28.② 29.춘풍이~볼만하다. 30.④ 31.⑤ 32.①

II. ② 남신의주 유동 박시렁

1.④⑤ 2.① 굳고 정한 ② 객관적 상관물 ③ 상징적 3.④ 4.④ 5.④ 6.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7.③ 8.⑤ 9.② 10.갈매나무 / 위 시와 '보기'의 '갈매 나무'는 모두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1.④ 12.⑤ 13.④ 14.③④⑤ ⑥ 15.② 16.운명이라는 17.② 18.④ 19.③ 20.⑤ 21. ④ 22.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냄. 23.⑤ 24.④ 25.이 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26.① 27.③ 28.⑤ 29.④ 30.②

II. ③ 세한도

1.③ 2.② 3.㉠의인 ㉡명령 4.③ 5.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 회관, 난장 난 비닐하우스 6.④ 7.④ 8.③ 9.청솔, 희망을 나타내며 삶의 생명과 의지를 부여함. 10. ⑤ 11.② 12.④ 13.⑤ 14.④ 15.평서형에서 명령형으로 변화→ 농민들과 청솔의 의지적 자세 강조. 16.⑤ 17.③ 18.② 19.② 20.⑤ 21.황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해 청솔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는 농민들을 나타냄. 22.② 23.④ 24.⑤ 25.① 26.⑤ 27.② 28.① 29.① 30. ⑤

II. ④ 메밀꽃 필 무렵

1.㉠: E, ㉡: PAN, ㉢: F.O 2.② 3.⑤ 4.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여운을 준다. 5.③ 6.⑤ 7.② 8.④ 9.③ 10.③ 11.② 12.M 13.윗글에선 대사로 처리됨. 14.① 15.⑤ 16.③ 17.⑤ 18.① 19.② 20.③ 21.② 22.④ 23.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여운을 준다. 24.② 25.④ 26.㉠: 동반자 ㉡: 혈육 ㉢: 나귀 새끼 27.나귀가 새끼를 둔 것처럼 허 생원도 자식을 두었을 가능성을 암시함. 28.② 29.④ 30.① 31.④

II. ⑤ 유충렬전

1.② 2.④ 3.③ 4.① 5.주 성왕도 회과자책(悔過自責) 하여 성군이 된 것과 태산 같은 그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풀을 맺어 갚겠다는 천자의 말 때문임. 6.④ 7.③ 8.⑤ 9.신기한 영웅, 유심의 아들, 옥황께서 주신 아들 10.㉠: 정한담 ㉡: 천자 ㉢: 유충렬 11.① 12.㉠: 대변(大變) ㉡: 이를 피할 방법 ㉢: 전기성 13.③ 14.㉠: 천자 ㉡: 성군 ㉢: 태자 ㉣: 남북 적병 15.② 16. ② 17.⑤ 18.㉠: 고위 관리인 유심과 부인 사이에서 기자자성으로 태어남. ㉡: 신가한 태몽 꾸고 영웅기상 지니고 태어남 19.⑤ 20.③ ⑤ 21.④ 22.③ 23.① 24.④ 25.② 26.어찌 아니 망극하랴 / 충렬과 부인에 대한 서술자의 연민을 드러낸다. 27.③ 28.③ 29.② 30.① 31.② 32.④

II. ⑥ 울포의 기억

1.③ 2.⑤ 3.① 4.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노동하는 사람들과 잡히지 않으려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생명 5.② 6.④ 7.③ 8.성자 9.① 10.③ 11.㉠위태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 ㉡노동의 힘겨움과 송고함 12.② 13.⑤ 14.② 15.③ 16. ③ 17.⑤ 18.④ 19.① 20.③ 21.④ 22.③ 23.③ 24.1)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 2) 운율 형성, 의미 강조

III. ⑦ 이옥설

1.③ 2.① 3.⑤ 4.④ 5.① 6.③ 7.① 8.(1)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9.② 10.① 11.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④ 13.③ 14.① 15. ⑤ 16.① 17.③ 18.① 19.⑤ 20.④ 21.⑤ 22.④ 23.① ⑤ 24.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25.④ 26.② 27.③ 28.④ 29.⑤ 30.③

III. ① 속미인곡

1.③ 2.④ 3.③ 4.④ 5.⑤ 6.② 7.③ 8.④ 9.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임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해 적극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10.④ 11.④ 12.② 13.③ 14.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하며, 을녀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이다. 15.갑녀의 질문에 응하면서 하소연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며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실제적 중심 역할을 하는 화자이다. 16.⑤ 17.⑤ 18.① 19.③ 20.⑤ 21.(1) ㉠과 ㉡은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은 소극적 애정관을, ㉡은 적극적 애정관을 드러낸다. (2) ㉡은 임의 곁에 오랜 시간, 더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22.(1) (다)의 '두견'과 '구름'은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형상화 된 점에서 ㉠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A] 관직을 잃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는 충신연주지사 [B] <보기>의 화자는 독백체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다)의 화자는 대화체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3.⑤ 24. ④ 25.④ 26.㉠ 작가가 임금에게 버림받고 관직에서

I-1 산수유나무의 농사

1.④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없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생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나면 대구법이 됨.

2.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 **응, 헛갈리지 마!** ◀

사물 vs 자연물

-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3.⑤

①, ②, ③ ㉠을 보여줌. ④ ㉡를 보여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1.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1.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5.⑤

▶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임.

▶ **넣어둬, 패턴 공략** ◀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6.④

▶ 타인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다짐을 하기에 ④가 가장 적절함.
③ 독자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후원이기에 적절치 않음.

7.②

▶ 그늘과 열매 하나는 다른 존재를 위한 배려를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새>: 순수한 삶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 ② <가을 떡갈나무 숲>: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
- ③ <무어별>: 이별의 슬픔
- ④ <은수저>: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 ⑤ <산에 언덕에>: 그리운 이가 추구하던 소망의 실현에 대한 염원

▶ **됐다, 1등급 조언** ◀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8.④

▶ ㉠ ‘꽃’은 긍정적임.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통념(★):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9.⑤

▶ ‘산수유나무’↔‘불평하는 사람들’ / ‘진눈깨비’↔‘함박눈’처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우리가 눈발이라면>

- *주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또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
- *해제: 화자는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남루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려고 한다. 이 시의 잔잔한 감동은 화자의 이러한 소박하면서도 맑은 심성에서 비롯되는데,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 또는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는 힘든 세상살이를 낳는 우리의 사회 현실과 이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말한다.

▶ **됐다, 1등급 조언** ◀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11.④

1. 어두운 부분. (ㄷ)
2.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ㄷ)
3.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 (ㄷ)
4.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 또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두운 표정. (ㄱ, ㄴ)

12.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가며 타인에게 배려하지 않고 인색한 현실을 비판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갯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갯아지 뒤편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갯아지는 뒤편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2.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넣어둬, 패턴 공략!◀

선지에 <감각>이란 말이 나오면 시각(보이는 것), 청각(소리), 촉각(피부의 느낌), 후각(냄새), 미각(맛)과 관련지어라!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응, 헛갈리지 마!◀

원관념 vs 보조관념 (★)

비유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여기서 전자를 원관념, 후자를 보조관념

이라고 한다. 따라서 원관념은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을 뜻하고 보조 관념은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을 말한다. 가령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했을 때, 원관념은 '꽃'이 되고 보조관념은 '내 누님'이 된다.

13.④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모두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다는 ④가 가장 적절함.

14.④

▶'구부정 소나무'는 화자의 고향을 떠올리기 하는 매개체일 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반영된 것은 아님.

◆주제 저장소◆

- ① <무등을 보며>: 가난을 이겨 내려는 삶의 긍정적 자세
- ② <흥부 부부상>: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극복
- ③ <남산의주 유동 박시봉 방>: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④ <구부정 소나무>: 타향에서 느끼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
- ⑤ <고목>: 성숙한 삶에 대한 소망

15.③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정성과 고생을 통해 그늘을 드리운다는 뜻임.

16.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17.①

▶설의법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